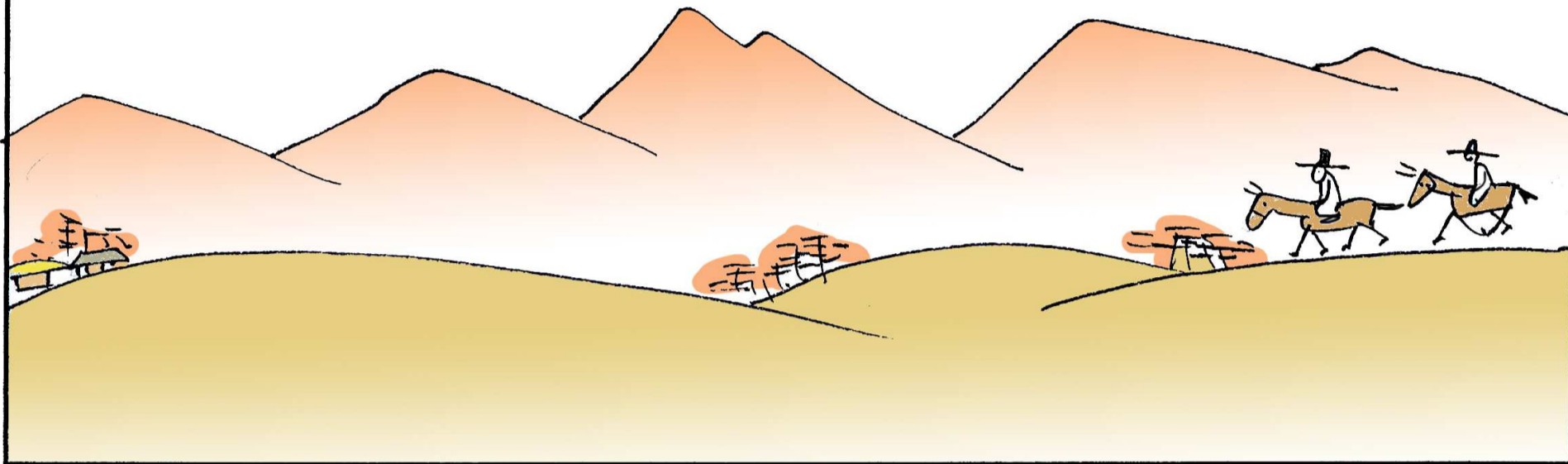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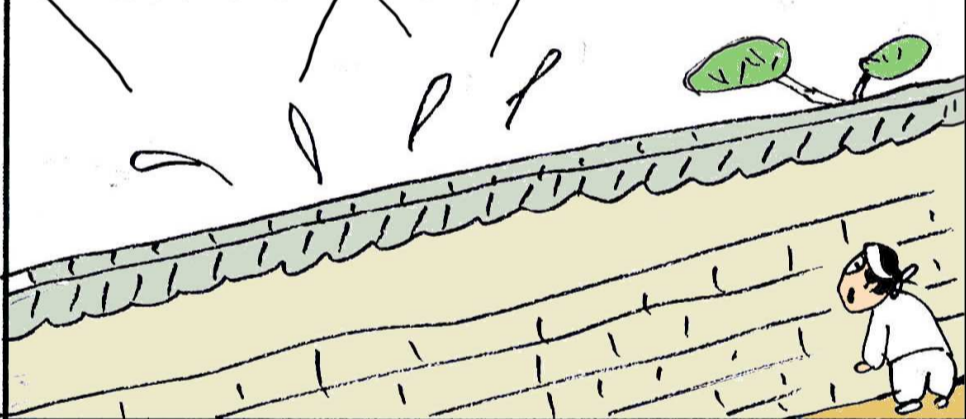


23. 명나라 황제를 감동시킨 글 솜씨(44세)



1544년 11월 15일 중종이 사망했다.

상감마마! 마마!



상감께서 승하하셨으니
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우선
급한 것 부터 처리합시다.



늦기 전에 상감의 생애와 업적을
정리해야 합니다.



아울러
명나라에
국상을
알리는
문서를
작성해야
하는데
누구에게
맡기면
좋겠습니까?



승문원에 근무하는
퇴계가 어떻습니까?



저도 찬성합니다. 퇴계는 청렴하고
반듯해서 특히 외국 사신이 올 때
접견상대가 되면 나라의 위상을
크게 올릴 인물입니다.



명나라에 국상을 알리는 서신 작성을 만장일치로
퇴계가 맡게 되었다.

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서라 나라의 체면도
고려해서 잘 써야하는데...



심혈을 기울여 작성해서...



사신을 통해 명나라에 보냈는데 서신을
받아 본 명나라에서 난리가 났다.



왕이 승하했다는 소식보다



소국에도
이런 인재가
있을 줄이야...

카아~ 문장이 수려하고 글씨 또한
명필이고, 마치 동방에 왕희지가
환생한 거 같다해.



퇴계의 서신을 보고 감탄했다는 거 아닌가.



표문의 글이
좋고 필법도
기묘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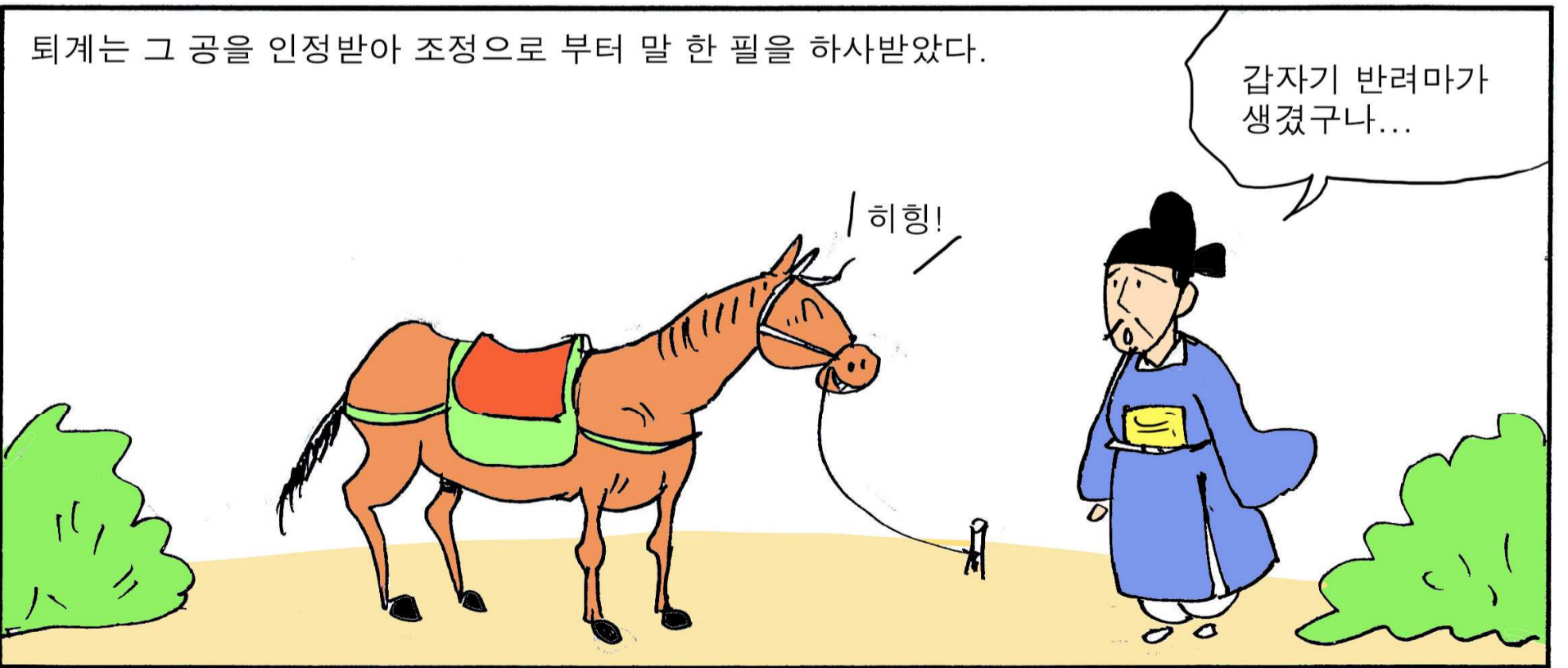
꾸밈없고
단아한 글씨가
일품이야

퇴계 덕분에
조선의 국위가
선양됐다면서요

중국에 분
한류의 원조라고
할까요.



퇴계는 그 공을 인정받아 조정으로 부터 말 한 필을 하사받았다.



히힝!

갑자기 반려마가
생겼구나...